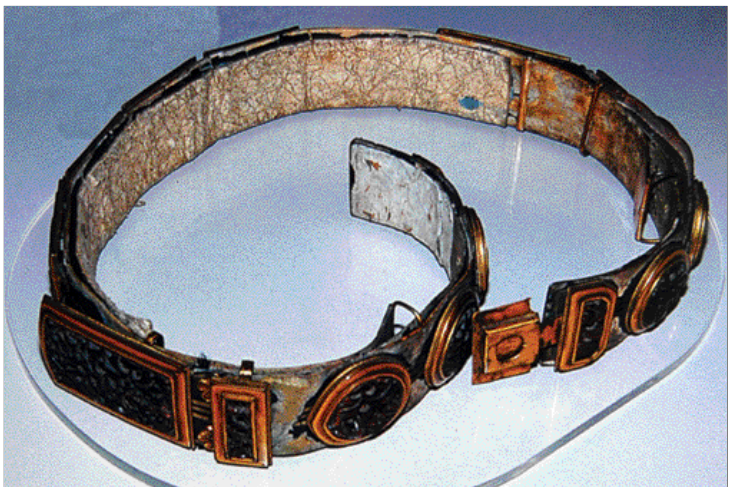
忠毅公 權應銖장군 일대기

〔연재제4회〕

權 五 庠
충의공기념사업회전이사



▲충의공의유물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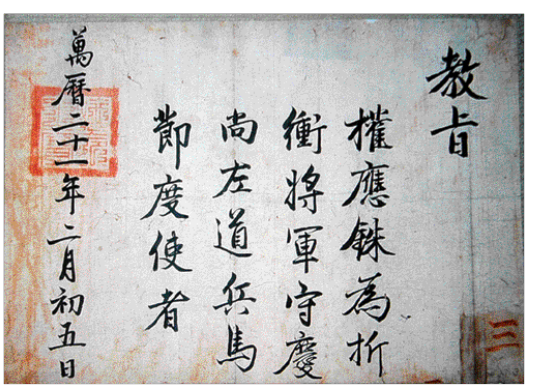
2. 임란 전쟁 실기[承前]

③ 조선왕조의 임전태세臨戰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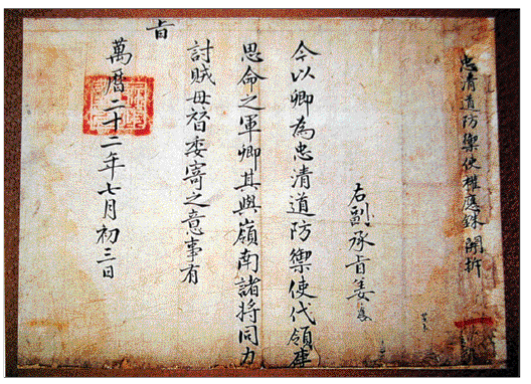
* 허술한 국방실태

고려시대는 무단정치武斷政治가 극極에 이르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 반면, 조선왕조에서는 유교를 국가의 최고 지도원리指導原理로 삼아 급속한 문인정치文人政治로 흘러 극도의 문약화文弱化를 초래하는 풍토가 조성된다.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무인다운 기질이 나타나 북변개척北邊開拓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이내의 영토를 확실히 확보하는 등 국토와 경지耕地의 면적을 크게 넓혀나갔다. 이와 동시에 그는 무인武人 출신이면서도 무인정치의 폐단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문인관료文人官僚 우위정치優位政治로 이행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시대상時代相에 걸맞는 국가경영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했다. 어떤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쫓겨 민생民生과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팽개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풍조는 조선왕조 초기 약 50년 내지 1백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문약화의 도를 더해가고 심한 당쟁黨爭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네 번에 걸친 사화士禍는 실로 허무맹랑한 재앙으로 유위有爲한 인재人才를 없애면서 허송세월을 일삼는 형국이었다. 네 차례의 사화가 모두 황당한 일이었다. 연산군燕山君 4년의 무오사화戊午史禍는 김종직金宗直이 쓴 글이 세조世祖를 비난하였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고 동 6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는 연산군의 죽은 어머니 문제가 발단이었다. 중종 14년의 기묘사화己卯士禍는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전횡專橫과 모반 조작이 구실이 되었으며 명종 원년元年의 을사사화乙巳士禍는 왕위계승王位繼承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어느 하나 당면한 나라의 기본문제나 국익國益과 직접 연관된 것은 없었다. 오직 파당派黨 간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모함과 음모를 일삼고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마침내 일본의 침략을 자초하게 된다.



▲충의공을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발령한교지



▲충의공이충청도방어사일때임금이내린교지

당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가 공히 취약한 내정內政으로 왜구의 침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얕잡아 보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정치상황은 오늘날 국내적으로 경제개발과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나 평등과 분배 문제에 목을 매며 낡아빠진 이념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어리석음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15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왕조에서는 유교정치의 폐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무비武備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고려 말에 발달하였던 신무기에 대한 연구도 중단되고 점차 귀족화한 관인官人들은 나라의 세력을 차지한 다음, 백성을 착취하여 치부致富하는 데만 몰입하게 된다. 이율곡李栗谷의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도 외면되었다. 그 주요 이유는 무신武臣들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면 자기들의 지위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데 있었다. 유교에 바탕한 주자학朱子學의 성행盛行은 조야朝野로 하여금 문치文治에 더욱 치중하게 했다. 시일이 흐를수록 무비를 소홀히 하게 되어 국방력은 전반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군대는 수도 적고 훈련도 없었으며 무기에 대한 연구나 신무기 개발 또한 없었다. 쓰시마도對馬島의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1589년 8월 28일 선조 임금에게 가져다 바친 일본제 조총鳥銃 수정挺도 임진왜란이 날 때까지 3년 가까이 창고에서 녹이 슬고 있는 지경이었다.

당시 허약한 국방실태 가운데 몇 가지를 예시해 보면, 임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선조 7년 3월 25일에 임금이 친히 군대사열軍隊査閱을 하명下命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었다. 이유는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선조 11년 4월에 경상병사慶尙兵使가 교체되는 중에 그 아래 우후虞侯[병사나 수사의 바로 다음 관직으로 품계는 종 3 품]로 있던 사람이 무기를 정비하고 기강을 엄격히 하려고 하자 군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밤중에 군영문軍營門을 열어 제치고 결진結陣[오늘날의 능사와 같은 시위 또는 데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황한 우후가 사과함으로써 사태가 진정되었으나 새로 온 병사가 부임하여 주모자를 은밀히 잡아가두고 우후도 감금한 다음 장계狀啓[지방의 고위관리가 임금에게 직접 올리는 보고서]로 조정에 알리니 선전관宣傳官[임금의 명령을 직접 집행하는 관리]을 보내 감사監司와 병사兵使 모두를 추국推鞫[조사와 심문]하고 주모자의 목을 베어 효수梟首[죄인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이 보도록 높은 데 매어다는 것]하게 하는 등으로 기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일도 있었다. 그때는 군정軍政이 크게 문란하여 윗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진을 예사로 하였다. 군기軍紀의 문란이 극에 달하여 하극상下剋上을 밥먹듯하고 군대검열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사기도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었다. 병사兵士들이 술병을 들고 거리로 나가 행패를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였다. 지방 총사령관격인 감사監司도 1년이 멀다하고 교체되었다. 육진六鎭[북방 변경에 설치한 방어보루防禦堡壘]에 나가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무반武班을 천시하는 사회적 기풍은 극에 달하여 군무軍務를 기피하고 군기를 뒤흔드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전라 감사 유희춘柳希春은 군사훈련으로 중종中宗 5년 경오庚午 왜변倭變 때 안동 투석군安東投石軍의 전공戰功을 교훈삼아 투석훈련만 실시하는 일도 있었다. 왜국倭國의 침략기운이 점차 짙어지자 조정에서는 군사편제軍事編制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제승방략制勝方略에 대신해 진관법鎭管法을 시행하려 하자 경상 감사 김수金睟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시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보여준 예이다.

제승방략이란 북방 여진족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가 뒤에 편의에 따라 변형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남쪽 바다로부터의 대규모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조직이나 운영체계로는 부적합하였다. 반면 진관제鎭管制는 전국적 군사조직으로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적의 침범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개 감사監司가 반대한다고 해서 왜적의 대규모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진관제의 시행을 보류했다는 것은 당시 조야의 사정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실증實證이라 하겠다. 왜적이 침범하기 몇 년 앞서 진관법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전쟁 연습을 미리 해 두었더라면 임란 초기의 혼란이 많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주】육진六鎭은조선세종때 동북방면의 여진족내습에대비하여두만강하류 남안南岸에설치한 국방상의 요지要地 여섯 곳, 즉 부령富寧 · 종성鍾城 · 경원慶源 · 온성穩城 · 경흥慶興 · 회령會寧등이다.

【주】경오왜변庚午倭變은 조선 중종 5(1510)년에 일어난 왜인들의 난으로 삼포왜란三浦倭亂이라고도 한다.

【주】제승방략制勝方略은 조선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김종서金宗瑞가 안출案出하였고 선조宣祖 때에 이일李鎰이 보완한 8진성鎭城의 위치, 공수요해攻守要害[공격과 방어의 요충지]와 용의用意[준비또는대비] 등을 잘 알고 있어야할 방변대防邊隊에관한사항을규정. 6진鎭의군관명軍官名과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의 제행諸行[모든 행동지침], 제승방략장狀[제승방략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지시]과 그에 대한 회장回狀[지시를 지킨 내용에 대한 회신]도 부기하여 유사시에는 육진오위六鎭五衛가 이에 따라 협력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북방 변경 방위를 위한 조직으로 출발하여 뒤에전국으로확대시행했는데임진왜란과 같은왜군의 대거침략에 대처하기에는 부적합한군사편제였다.

【주】진관법鎭管法은 지방 방위를 위한군사조직에 관한사항을경국대전에규정한내용으로초기에는각지방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소재지를 주진主鎭이라 하고 그 밑에 몇개의 거진巨鎭을 두어 절제사節制使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장악하였다. 이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에 여러개의 진鎭을 두었으며, 진관은 평시에는주진의관할하에있었으나전쟁이 일어나면 각 진관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어느진관이패전하면다른 진관이 대신 출전하도록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육군에는 66개의 진관이있고수군에는8개의 진관이 있었다. 전국적인 군사조직으로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 진관법이시행되고 있었더라면 혼란이 많이줄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 일본에 사절使節로 간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과 부사副使 김성일金誠一 간의 의견 불일치로 국내의 여론과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게 된다. 당시 임금 앞에서 한 정사와 부사의 보고내용을 보면, 당파黨派 싸움에서 서인西人 황윤길은 ‘ 히데요시秀吉의 안광眼光이 빛나고 담력과 지혜가 있사오니 반드시 큰 힘을 동원하여 침략하여 올 것입니다 ’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인東人 김성일은 ‘ 히데요시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눈이 쥐와 같사오며 용렬庸劣한 인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 하였다. 당시 조정의 힘이 동인쪽에 실려 있었으므로 김성일의 주장에 따라 각도道에 명한 최소한의 왜란 방비책도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록 몇백년 전이라고는 하나, 외교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의 언동이라든가, 주변 인물의 동향, 객관적으로 비치는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중대 사안事案을 히데요시의 관상觀相으로 판단하는 보고를

11면으로계속